

## 염려함

(마 6: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왜 염려할까요?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항상 염려합니다. 또한, 우리는 상실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게 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도 우리를 염려하도록 몰아잡니다. 취업에, 스펙에, 결혼에, 모든 것이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사회 분위기는 우리를 더욱 염려하도록 부추깁니다.

'염려하는 마음 자체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염려하는 여러분들을 믿음없다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치열해지고, 직장 구하기도 어려워져서 고통받는 청년들을 보실 때, 긍휼의 마음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따스하게 여러분을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 느헤미야의 걱정이 훗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만들어 낸 사례

이렇듯, 하나님의 따뜻한 초청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해 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첫째, 내 소유권을 포기하십시오.**

\* 어린 아이의 양 손에 들려있는 허름한 막대사탕 이야기

**둘째, 내가 계획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이야기

\* 계획 많았던 야곱의 이야기

**셋째, 아버지께 나를 내어 던져야 합니다.**

\* 낙하산 훈련 이야기

**넷째,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 오스 힐만, *하나님의 타이밍* 책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완전히 안기면 일어나는 가장 확실한 변화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해가 되지 않는 평안,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 내 마음을 감싸 안아 줍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모두 누리시는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